

최상위 국어 솔루션! 月刊 김대기

月刊 김대기  
4월호

1주차  
Work Book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 먼 육천 리

(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선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 선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문제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① (가), (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나), (다)는 동일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얻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대상과의 단절로 인한 아픔이 드러나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반복과 변주의 형식을 통해 고조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 2]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보기>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

<보 기>

시적 화자는 부정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먼저 ① 극복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처지와 대결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거나 ②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에 비탄에 잠기기도 한다. 또는 ③ 대상이나 상황의 부당성과 비가치성을 풍자하여 비하시키며, ④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절망적인 대결을 감행하기도 하고 아예 ⑤ 대결을 포기하고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도피적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문제 3] <보기>와 ㉠을 비교하며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보 기>

이 나라 나라는 부서졌는데  
 이 산천 여태 산천은 남아 있드나  
 봄은 왔다 하건만  
 풀과 나무에뿐이어

오! 서럽다. 이를 두고 봄이나.  
 치어라. 꽃잎에도 눈물뿐 흘리며  
 새 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쉬어라. 이 두근거리는 가슴아.

- 김소월, 봄 -

- ① ㉠과 <보기> 모두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어.
- ② ㉠과 달리 <보기>는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
- ③ ㉠과 달리 <보기>에는 시적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드러나 있어.
- ④ ㉠과 <보기> 모두 시적 화자가 느끼는 인간사에 대한 무상함이 담겨 있어.
- ⑤ <보기>는 ㉠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문제 4] ㉠에 담긴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4)

- ① 다락엔 달이 밝고 날씨는 짙쌀코야 / 향수는 가을인 제 구름 끝 쉼게 도니 / 소식은 들을 길 없어 혼자 밤을 새나니.
- ② 풍설(風說)이 돌고 보니 말썽은 더욱이요 / 뜬 시름 갖는 원한 풀 길은 바이 없어 / 문 닫고 드러누우니 병들었다 하더라.
- ③ 뜻밖에 임의 글을 반갑게 받아 보니 / 곳마다 눈물 흔적 글자가 흐렸고야 / 달 밝고 고요한 밤엔 생각 더욱 설워라.
- ④ 이별이 설워라고 맞잡고 우는 눈물 / 다음날 만날 때엔 차라리 비가 되어 / 알뜰한 님의 옷에다 뿌려 뿌려 보오리.
- ⑤ 시집 갈 제 꽃앓던 이 금비녀 / 오늘 그대에게 맘 고이 드리노니 / 먼먼 천 리 타향에 잊지 말아 주소서.

[문제 5] (가)~(다)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시어>	→	<연상 내용>	→	<시어의 의미 파악>
①	봉화	→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것	→	전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②	산	→	높이 솟아 있어 통행을 가로막는 장애물	→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군.
③	꿈	→	현실에서 벗어난 공간	→	화자의 소망이 성취된 공간이겠군.
④	새벽달	→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홀로 떠 있는 것	→	화자의 쓸쓸함을 부각시키는 소재이군.
⑤	섬	→	물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것	→	고독한 처지에 있는 화자를 상징하는군.

[문제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

- ① ㉠과 ㉡은 모두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시적 화자의 소망이 충족된 공간이다.
- ④ ㉠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은 처해 있는 공간이다.
- ⑤ ㉠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 ㉡은 지향하는 공간이다.

현대 소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가 헌 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뺨조각을 하나씩 집어 들고 수건으로 흠을 닦아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계가 되물었다.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 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인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입자 없이 이 꼴로 팽개쳐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지요.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요. 죽은 사람이 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쯔쯔.”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뺨조각에 묻은 흠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흠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셔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적찢적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버리는 것이었다.

<중 략>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은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중요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

꾸만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겁겁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째렁째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따리를 들고 앉아 있는 소름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웁. 까우웁.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박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밭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 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문제 1] 위 글로 미루어 알기 어려운 것은? ㉠

- ① 유해의 신원에 대해 소대장과 인사계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 ② '나'는 철사줄에 묶여 잡혀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 ③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 ④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써 부인하고 싶어했다.
- 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자상한 한 남자로만 간직하고 있다.

[문제 2] '철사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연결 고리가 된다.
- ② 함박눈의 이미지와 대비되어 주제를 부각한다.
- ③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 ④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⑤ 이념적 대립이 유발한 고통스러운 굴레를 암시한다.

[문제 3] <보기>에서 소개한 영화를 관람한 후,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하여 토의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9)

<p>&lt;보 기&gt;</p> 	<p>한국 전쟁 유해 발굴단은 새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진석 노인에게 전화를 건다. 연락을 받은 이진석 노인은 지난날을 생각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피난을 가던 진석과 형 진태는 강제 징집되어 같은 부대에 배속된다. 진태는 동생을 살려 귀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워 전쟁 영웅이 된다.</p> <p>그러나 비극적 운명이 그들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 …… 유해가 있는 곳에 도착한 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녹슨 만년필을 보며 “5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린다.</p>
--	---

- ① 민경 : <보기>와 같이 유해 발견을 내용 전개의 실마리로 삼으면 좋겠어.
- ② 윤경 : <보기>에서 진석을 통해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듯이 ‘나’를 통해 가족의 과거사가 드러나도록 하자.
- ③ 충희 : <보기>의 진태처럼 ‘나’의 아버지도 비극적 인물로 설정해야 하겠어.
- ④ 성은 : <보기>에서 진석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듯이 ‘나’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있어.
- ⑤ 진수 : <보기>의 진석이 유해 앞에서 절규한 것과는 달리 ‘나’는 유해 수습 장면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도록 하자.

[문제 4] ㉔에 나타난 ‘노인’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10)

- ① 하늘을 우러러 / 울기는 하여도 / 하늘이 그리워 울음이 아니다. / 두 발을 못 뺀 이 땅이 애달아 / 하늘을 흘기니 / 울음이 터진다. / 해야 웃지 마라. / 달도 뜨지 마라.
- ② 전쟁이 뺏아간 나의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오. / 건물과 창백한 묘지 있던 자리에 / 꽃이 피지 않도록
- ③ 사람은 누구나 / 생(生)과 사(死), 한 몸에 지녀 / 한 몸에서 / 삶은 죽음 / 죽음은 삶 / 서로 돕다 / 몸 허물어지면 그뿐. // 땅으로 / 하늘로 / 아, 이별 / 혼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 / 그곳으로 또 떠나 는거지.
- ④ 누군가 지팡이로 후려치지 않는 한 / 깊은 휴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리. / 하나의 형상 역시 / 누군가 막대기로 후려치지 않는 한 / 다른 형상을 취하지 못하리. / 육신이란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 / 헛된 휴식과 잠 속에서의 방향의 나날들.
- ⑤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냇들은 / 눈도 감지 못하였겠고나. //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냥 /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도 / 더 너그러운 것이다.



[문제 5]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 ① 아버지로 인한 '나'의 암울한 심리를 강화한다.
- ② '나'가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
- ③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나'가 수용하게 됨을 암시한다.
- ④ 아버지를 죽게 한 세력에 대한 '나'의 대결 의지를 강조한다.
- 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고전 소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왕은 황제의 셋째 아우인데, 그 무남독녀는 용모와 재주가 겸해 뛰어나고 시서(詩書)에 능통하였다. 양왕이 공주를 낳을 때 얻은 꿈에 선관이 매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이 꽃은 봉래산(蓬萊山)의 설중매(雪中梅)니, 그대는 이 매화나무에 오얏(李)나무를 접하면, 지엽(枝葉)이 번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만삭에 공주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매향(梅香)이라 하고 자를 봉래산이라 하였으니,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와 재주가 비상하니, 양왕이 애중하여 배필 고르기를 여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선을 한번 보고 대현 군자(大賢君子)인 줄 알고 구혼하여 그의 부친 위왕의 허락을 얻고, 장차 길일을 택하려고 하던 차에 이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알고 크게 노하여 퇴혼하려고 하였으나, 매향 공주가 말하기를,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녀불경이부(列女不更二夫)라 하나이다. 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타문(他門)에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친의 뜻에 따르지 않으며, 양왕이 오래 침묵하고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내 슬하에 아들이 없고 오직 너 하나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위탁하고자 하거늘, 네가 그러하니 이것이 모두 이 아버지의 박복한 탓이다.”

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 공주가 재배하고,

“소녀는 부모의 말씀을 수화(水火)라도 피하지 않사오나, 이번 일만은 순종할 바가 아니오매, 그 죄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공주가 뜻을 변하지 않으므로 양왕은 매우 근심하던 차에 이선의 벼슬이 초공에까지 이름을 보고, 양비 최씨와 상의하여 말하되,

“이제 이랑의 벼슬이 초공에 이르고 위인이 특출하니, 매향은 그 둘째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까 하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떻소?”

“그 애한테 물어 보십시오.”

공주를 불러 물어본즉,

“타문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한 저인데 차비(次妃) 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까.”

“그러면 위왕을 만나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 조회에 들어가서 어전에서 위왕을 보고,

“위왕은 우리 집과 혼인을 이미 허락하고 타처와 하신 것은 웬일이오?”

하고 추궁하자, 위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고,

“저로서 약속을 어김은 닳 돌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제가 상경한 사이에 만누이에게 선의 수양을 시켰더니 제가 서울에서 귀가(貴家)의 소저와 약혼한 줄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지금 와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황제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선의 일은 짐이 다 아는 바이니, 그의 불민함도 아니고 천정(天定)함이니, 다투지 말고 양왕은 다른 데 구 혼함이 어떤가?”

양왕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되,

“성교(聖敎) 지당하오나 신의 딸이 그냥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않으려 하오니 그 정상이 가장 민망하옵니다.”

황제가 매향 공주의 뜻을 칭찬하시고,

“경녀(卿女)의 절행(節行)이 족히 고인에 못지 않으니 기특하다. 이제 이선의 벼슬이 족히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이 어떤고?”

양왕은 황제의 말에 즉시 찬성하여 사은하였으나, 위왕은 옆드려서 아뢰되,

“양왕의 공주는 금지옥엽(金枝玉葉)이라 선의 차위(次位)에 굴(屈)함이 불가하오나, 어찌 성교를 위월(違越) 하오리까?”

“집이 이제 이선을 불러 결단하겠소.”

하고 선을 부르시니, 초공이 필경 양왕의 혼사인 줄을 알고, 병을 빙자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근심한 정렬부인 속향이,

“황상께서 명초(命招)하시는데 어찌 칭병하십니까?”

“이번에 부르심이 양왕의 혼사 때문이라 칭병하고 피할 생각이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정색을 하고,

“공(公)이 비록 나를 위하여 주니 감사하오나, 신자(臣子)의 도리로 옳지 못합니다.”

[㉞] “나도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전에서 사혼(辭婚)하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면 부인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그 여자가 국척(國戚)의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家中)을 탁란(濁亂)시키면 우리 가문의 청덕(淸德)이 이로 인하여 손상되리니, 황송하나 거절함만 같지 못하오.” ]

“그러나 그 혼사를 거절함은 두 가지 뜻에서 불가하옵니다. 하나는 군명(君命)을 거역함이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요, 하나는 그 여자가 타문에는 출가하지 않고 백 년을 독수공방(獨守公防)하면 그 원한을 사나이 대장부가 살 바가 아닙니다.”

부인의 이런 충고에도 이선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더라.

사관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자, 황제가 양왕에게 이선이 병으로 입궐하지 못한다 하니 다음 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양왕은 초공이 혼사를 거절하고 거짓 병으로 어명(御命)까지 거역함을 짐작하고 격분하여 장차 이선을 해칠 앙심을 품게 되니라.

— 작자 미상, ‘속향전’

[문제 1]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2)

- ① 매향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 ② 황제는 두 집안의 갈등을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주었다.
- ③ 양왕은 위왕의 간계로 혼약이 깨진 것으로 오해하였다.
- ④ 위왕은 혼사에서 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속향은 이선이 혼사 문제로 원한을 사게 될까 염려하였다.

[문제 2] <보기>의 '양소유' 입장에서 위 글의 '이선'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13)

<보 기>

이날 상서가 상소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황제 폐하께 아뢰입니다. …… 소신(小臣)이 바야흐로 정가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채하였는데 천만 뜻밖에 부마로 봉코자 하시어 황태후의 명으로 이미 받은 납채를 내어주라 하시니, 이는 예로부터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원컨대 폐하는 왕정과 인륜을 살피 정가와 혼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이 보시고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크게 화를 내어 ‘양 상서를 감옥에 가두라.’ 하자, 조정 백관이 다 다투어 간(諫)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 김만중, <구운몽>에서

- ① 황실의 부마가 되는 길을 마다한 것은 좋지만, 거절의 사유는 매우 불순해 보인다.
- ② 비록 황제의 명일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서는 안 된다.
- ③ 부인을 돌씩이나 두는 일이 불가한데도 내심 그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④ 집안의 일을 중히 여기고 나라의 일을 가볍게 보았으니, 이는 불충(不忠)이 아닐 수 없다.
- ⑤ 벌을 받게 될지라도 자기 뜻을 당당히 밝혀야지, 병을 핑계로 모면하려 한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문제 3]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

- ① 상대방을 납득시키고자 한다.
- ② 칭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알리려 한다.

[문제 4] 위 글 이후의 사건을 <보기>와 같이 예상해 보았다. 그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은? 15)

<보 기>

양왕의 주장으로 이선이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어 집을 떠난다. 이선은 위기에 처하지만 선계(仙界)의 도움으로 벗어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돌아온 뒤 이선은 양왕과 화해하고, 매향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후 매향은 숙향과 의종계 지내며, 이선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 여럿을 두고 다복하게 일생을 보낸다.

- ① 양왕의 태몽에 선관이 나타나 매향의 훗날을 예언하였다.
- ② 매향은 이선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 ③ 매향은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 ④ 위왕은 혼약을 어긴 것에 대해 양왕에게 사과하였다.
- ⑤ 양왕은 매향의 일로 이선에게 양심을 폄하였다.

비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술은 그 내부적인 발전 경로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술(혹은 인공물)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통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술의 발전 경로는 이전의 인공물보다 '기술적으로 보다 우수한' 인공물들이 차례차례 등장하는, 인공물들의 연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경로가 '단일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는 인공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설계 방식이나 생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종합하면 기술의 발전은 결코 사회적인 힘이 ㉠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단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의 발전 경로를 열심히 추적해 가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인공물을 만들어 낼 때, 그것이 특정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 자본가, 소비자, 은행, 정부 등의 이해관계나 가치체계가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기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미 그 속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기술이 서로 경쟁하여 그 중 하나가 사회에서 주도권을 ㉡ 잡는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적 우수성이나 사회적 유용성이 아닌, 관련된 사회집단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결국 현재에 이르는 기술 발전의 궤적은 결코 필연적이고 단일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르게' 될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통념은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를 넘어 그것이 사회의 형태와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견해로까지 ㉢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동력 기술이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주장, 새로운 정보 기술이 과거의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낳는다는 주장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적 관계와 행동 양식이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과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기술을 스스로 진화하는 실체로 ㉣ 여기는 사고가 놓여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은 결코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인 영향력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이다. 물론 특정한 기술의 발전 궤적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있다. 핵 발전 기술처럼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 자리잡은 거대 기술시스템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실체로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지적은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이 사회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율적인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기술시스템을 지탱하는 요소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총체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 1] 위의 글이 수업을 위한 원고의 일부라고 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

<보 기>

• 수업의 개요와 목표 : 현대 사회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통념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인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위한 이론적 전제를 모색한다.

- ① 과학 기술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② 과학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과학 기술은 과학과 기술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 ④ 과학 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 ⑤ 과학 기술은 사회 현실과 중립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 2] (가)와 (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견해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7)

- ① 기술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실체로 여긴다는 점
- ② 기술 발전이 사회 변화의 동력임을 강조한다는 점
- ③ 기술 발전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 ④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
- 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사회 발전 속도와 비례한다고 본다는 점

[문제 3]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 ① 논거가 되는 연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연구 자료를 조사한다.
- ② 사회 변화에 따라 가치 체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 ③ 기술 개발에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나 가치가 작용한 실제 사례를 조사한다.
- ④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통념에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를 분석한다.
- ⑤ 글쓴이가 통념을 종합하여 이끌어낸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문제 4] '거대 기술시스템'을 검색하여 <보기>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안은? 19)

<보 기>

[A] 미국의 기술사가인 토마스 휴즈가 사용한 용어로, 이 말에는 기술을 기계와 같은 인공물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까지 합쳐진, 일종의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B] 전기 시스템은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회사, 각종의 전기 기기들을 생산해내는 가전 업체,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회사,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 공장 등 여러 하위 시스템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인다.

[C]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관을 특징으로 하는 거대 기술시스템은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나 삶의 양식, 노동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① [A] : 기술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해관계의 총체임을 주장하는 논거로 활용한다.
- ② [B] : 기술이 자율적 실체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활용한다.
- ③ [C] :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 ④ [A], [C] :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독자적 실체로서 사회를 결정할 수는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B], [C] : 기술이 부분적으로 사회를 결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문제 5]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20)

- ① ㉠ 저지(阻止)할
- ② ㉡ 장악(掌握)하는
- ③ ㉢ 심화(深化)되는
- ④ ㉣ 간주(看做)하는
- ⑤ ㉤ 정착(定着)된

비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이성에 바탕을 둔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본다면, 신화는 인류가 지난날 한때 만들어낸 허구적 착안물에 불과하다. 더구나 자연물에 인격성, 나아가 신성을 부여하는 신화적인 발상은 현대인의 사고 방식에서는 미신으로 ㉠ 치부(置簿)된다. 하지만 신화는 현대 사회의 탈마법화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화적인 세계를 갈망하게 만들기도 한다. 신화에 어떤 힘이 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2] 신화의 힘은 무엇보다도 나와 인류, 나아가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한 신화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화는 삶의 무수한 다양성을 보여주며 역사와 신성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해준다.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 세계에서 원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총체적 경험을 형상화한 것이다. 인간은 신화를 통해 삶의 뿌리를 찾으며 고립된 개체를 넘어선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받기에 이른다.

3] 우리가 오늘날 과거의 신화를 뒤적이는 것은 허황한 전설에 대한 ㉡ 탐닉(耽溺)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고 비판하기 위해 늘 대조하고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전거의 확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가 문학·철학·인류학·정신분석학·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 소진(消盡)될 줄 모르는 해석과 논쟁의 진원지 역할을 해 온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패륜아 오이디푸스는 현대 심리학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자신을 본 남자들을 돌로 변하게 하는 메두사는 현대 페미니즘 ㉣ 담론(談論)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신화는 이처럼 인류 정신 문화의 토양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4] 신화가 지니는 또 다른 힘은 신화가 현대인의 사고 방식과 다른 인식의 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누구인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아주 부분적인 해답을 내놓을 뿐이다. 현대인의 심리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런 면에서 뇌성과 더불어 번쩍이는 번갯불에서 제우스를 보고, 기다리던 봄의 도래에서 페르세포네의 귀환을 보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풍성하고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신화적인 인식은 비(非)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전(前)이성적이라거나, 신화는 생명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신화학자들의 언급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틀만으로 불안하게 버티고 있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들이 비워두었던 인식의 틀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5] 신화는 인간 역사를 재조명하고 반대로 인간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 침전(沈澱)되어 신화가 된다. 독선과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신화적 인식은 우리들에게 근원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갖가지 병폐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시각을 아울러 제시해 주며, 하나의 틀로만 세계를 바라보던 인간들에게 균형 잡힌 인식의 틀을 잡아줄 것이다.



[문제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1)

- ① 인간의 이성적 사고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② 신화는 민족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 ③ 현대인들은 신화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④ 신화적인 인식의 틀과 현대인의 인식의 틀은 다르다.
- ⑤ 신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해야 할 전거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 2] 다음은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책을 쓴 어느 저자와의 대화이다. 위 글의 논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22)

㉠	[	독자 : 신화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자 :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성한 이야기이지요.
㉡	[	독자 : 신화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저자 : 일반적으로 신화는 우주 기원 신화, 인류 기원 신화, 문화 기원 신화 등으로 분류합니다.
㉢	[	독자 : 신화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고 하는 의견도 있데요? 저자 : 한 가지로만 해석된다면 그것은 이미 신화가 아니지요. 신화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	[	독자 : 그리스 신화에 담긴 세계관을 간략히 말씀하신다면요? 저자 : 혼란에 대한 긍정입니다. 혼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	[	독자 : 신화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참이 아니라는 얘긴데, 과연 신화가 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 : 객관적인 사실만이 진리인 것은 아니지요. 신화는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원형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

<보 기>

□ 이 글을 읽고 난 후 아쉬운 점이 있다면?  
 -----  
 -----

- ① 우리의 신화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나라의 신화도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 ② 신화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있는 현실도 언급하면 주제가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 ③ 그리스 탐방 기사를 곁들여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글의 초점이 더욱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 ④ 신화의 서사 구조만 설명하고 있는데, 신화가 형성된 이유를 밝히면 집필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 ⑤ 첨단 과학 기술을 향유하는 오늘날에 신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방향으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문제 4]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보 기>

‘트로이’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소재로 만든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신에 의지하는 트로이의 왕과 사제들은 신적인 존재에 냉소적인 그리스 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아 오려다 촉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 트로이 전쟁은 20세기 초 역사학계의 조사 결과 역사적으로도 실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① 서사시 ‘일리아드’는 역사와 신성이 함께 담겨 있는 신화의 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겠네.
- ②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된다는 것은 신화가 오늘날까지 문화적인 토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 ③ 한 여인을 둘러싼 사랑과 그로 인한 전쟁 등은 신화가 다양한 삶의 장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 ④ 트로이 전쟁은 신화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스인의 갈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 ⑤ 신에 의지하지 않는 인물들이 신에 의지하는 인물들을 제압한다는 것은 탈마법화라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문제 5] ㉠ ~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25)

- ① ㉠ 치부(置簿) :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김.
- ② ㉡ 탐닉(耽溺) :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짐.
- ③ ㉢ 소진(消盡) :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 ④ ㉣ 담론(談論) :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
- ⑤ ㉤ 침전(沈澱) : 물, 공기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 분해됨.